

* 팀NO : 2019-030 (세바스타폴) (세바스타폴)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러시아 (1팀) 공항 : 하바롭스크 *항공권구매: (자율, ②)

2. 사역지 : 하바롭스크

3. 사역기간 : 2019년 10월 2일(수) ~ 10월 9일(수) / (1)박(8)일 ②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AM		이상석
주소	E-Mail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인-집	전 종욱	Jeon Jong Uk	12		91-102				
2	총무	집사	정 영미	Jang Young Mee	5		3836				
3	서기	집사	최 선미	choi SunMi	1						
4	회계	집사	김 세호	Kim Sea Ho	6		98-662				
5	의료	집사	이 동열	lee Dong Yeol	14		95-128				
6	수업	사모	강 가일	Kang Ka il	1		91-426				
7			양 윤영	Yang Yoon Yong	4						
8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수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6/16

황수안

6/16

정재영

소 감 문

팀 명 : 러시아1팀 (에바다부)
선교일 : 2019년 10월 2일 ~ 9일
재출자 : 전중욱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번 선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하시며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작년의 선교를 통해 긴밀해졌던 농민협회에서 주최하는 90주년 행사를 쉬운 전도의 기회로 삼겠다는 우리의 안일한 계획은 저 멀리 어긋나 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처음 시작하게 되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던 학원사역으로 앞으로의 사역방향을 이끌어 주셨다.

준비했던 어린이 사역 프로그램과 교제를 통해 전도를 계획했던 농민 기숙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다. 정탐만을 계획했던 구화인 기숙학교에서는 교장의 마음의 문을 열어 농민 기숙학교에서의 사역과 동일하게 사역하게 하셨다.

에바다부의 선교 사역이 현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라 미리 약속 없이 는 농민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방 가는 길에서 농민을 만나 전도를 하게 하셨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햄버거 가게에 근무하시는 농민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팔찌 전도를 통한 영접기도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또한 팀장으로 처음 섬기게 되어 여러 가지의 부족한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준 모든 팀원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소감문

러시아 1팀 예배기록 정리

이번 러시아 선교는 두번째로써 지난해 후라이볼을 선교하여 경험했던 러시아 농인들의 강박한 상황을 재형하였기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공항에서 호텔숙으로 이동하며 차가로 영접을 받는다. 또한 여러곳과 안수 없는 꽃들이 주어져 기쁨으로 산 반기는 듯 하였다. 도착후 첫 예배에 량장님의 말씀선포가 "주의 종이 모두와 함께 하시라" 라는 말씀으로 이번 선교는 9까지 친히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하시라 꽃들과 문들의 환한 기쁨의 맞이함과 같이 곳곳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라 확신은 자지고 선교에 임할 수 있었다.

도착 다음날, 수화인 학교, 농아인 학교를 방문하며 태권도 재개로 모한복음가:14번 가사를 부르며 9복음을 전하였고, 풍선만들기를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강아지를 만들게 하였는데 아이들이 태권도와 풍선에 무척이나 기쁘게 참여하였고, 두 학교 교장선생님께 감사인사를 기증 받고 저녁에도 꼭 참여해 맛있는 식사를 받게 되었다.

복음은 매이지 않고 흐르는 은혜로 1남방 농아인학교에서 우연히 ~~학생~~ 작년에 전도했던 여학생을 만났는데 1 학생이 친구가 태권도를 방문해 주었고, 복음파지를 만들고 여정가도를 받았는데 그중 "목심"이라는 남학생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모습을 보며 9의 인도하심을 9팀원들이 묵도하며 깨달을 수 있었다.

노방전도중에 농인들을 예비하며 주를 여정받게 하시고, 중심되기 위해 향했던 령배가 집까지 농인을 만나 여정을 받으셨고, 작년에 주님을 믿게 된 2명의 자매가 각각 딸을 초산하며 심방을 받게 하시므로 인물을 더욱 안전하게 주의 리 위에 세우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러시아 농인들이 예배드리는 브니엘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량장님의 설교가 브니엘 교회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셨다.

자랑심 강한 러시아에 주의 복음 등과 나아와 주의 손이 우리팀과 함께
하여 주심을 시가자가 평범하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 시편들을 하나하나
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으며, 끝까지 우리팀을 믿게
하셨으며 풍뎡들의 화려한 거름의 원음들이 이어지는 감사가 넘치는
시편이었다.

러시아 선교는 끝이 아닌 지속된 기도제목과 은혜의 교제라는
주제를 남겨 주었고, 차음부터 이 선교를 세심히 계획하시어
영광 받으신 주님께 모든 기쁨을 돌려 드리다

$$\frac{1}{1} \frac{1}{1} \frac{1}{1}$$

러시아 에바라브 텡 경영미

2학년 ~~2학년~~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에 살고 ~~있는데~~ ~~때에~~
 동아 학교가 방향이라 ~~하심지만~~, 이번 기원회
 동아 학교 2곳 (문화학교, 농민학교) 방문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태원로 운동 (오전 8:16) 하여주교
 학생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풍선 꾸미기 하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연락처 주고 받고, 끝
 라운 농민학교에 가서 이따 같은 프로그램의 사색하면서.
 학생 3명이 우리 숙소로 모래 ~~있~~, 하니,
 칭찬 칭찬하심 ~~복음~~ 복음을 전하심, 3명 중이
 남학생 ~~1~~ 학생이 풍자 주일날 브니알코에 왔어라.
 2 학생이 감동한 마음, 감동한 영혼을 보고 느꼈다.
~~학생 2명~~ ~~학생 2명~~ ~~학생 2명~~ 마지막 선물할 때
 학생이 복음 주일 감동한 일 잊어선 안된다
 학생이 기억하심 학생 마음 속에 새겨두리
 영매가 마음에 새겨두기 기억하리.

소장문

이 등 날.

작년에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갔다다사.. 두번째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가서 러시아 농인들이 만나서 반갑고
기분이 좋아서 서로 대타를 하고 친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화학교, 농인학교 방공에 가서 강당, 및 교실을
보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 학생들이
태권도를 가르쳐서 기분이 좋아서 ~~예~~ 밝은 마음을 줍니다.
러시아 농인 3명들이 교제를 하고, 복음 팔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드림은 ~~좋아~~ 참 좋아도...
맥심이 혼자서 브니엘교 ~~회~~ 회에 ~~참~~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찬양을 부리고 율동을 하고 맥심이 참 좋아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다시 구화학교 및 농아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드립 ~~후~~ 후이 ~~교~~ 교회의 가서
예배를 드릴수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학생들이 마음 속에 씨부리고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모두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감 글

이 동 열

작년에 처음에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가서, ^{중국인들이} ~~한글서~~
~~한글서~~ 러시아

김씨호

하나님께서도 러시아에 계시는
한기선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땅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된 선교사들은
파송하며 그 곳에 고령을 세워 복음으로
사람을 영혼을 깨우고 또 마음을 차유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참로 기쁘고 복음의 ~~유익(1%)~~ 유익이 1% (?)
밖에 안된다고 생각되는 선교를 크게 제한하는
속이지만 수많은 러시아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은 간절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러시아의 영혼들을 분명히 여기고
그 땅을 축복과 복음으로 생명의 바람이
불어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점

러시아 연방대북팀 양웅명.

오늘하는 일이 많아서 러시아 선교를 마쳐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팀에서 그림이 빠지고
정상성이 같이 가자고 권유해왔다. 계속 기도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두번이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었다. 과감히 주님께 맡기고 가자는 마음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다.

2019. 10. 2 - 2019. 10. 9 8일간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무장을 하고 K교에
마지막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사드리는 것이 참 많았던 은혜를 사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① 우리가 주님부터 사역지에 주목하시던 비밀이 아랍어로 공지를 받고 계속 기도했다. 시간이 아랍어라도 주님의 말씀이 귀하게요. 농악학교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루어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비록 가운데서 공회에서 타종교 연습과 상속 연습을 여러번 했다. 한곳 한곳 방문했는데 다행히 그 학교들의 교사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게 해줬고 우리가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같이 만들어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더 늘여주셨다. ② 브니엘 교회에서 작년에 2년간 포장한지 있었고 회관을 다뤘으나 떠나갔던 교인들, 지도자의 부재 등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으나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다스려 회교대화하고 했다. 은혜로웠던 것은 팀장님이 며칠간부터 계속 기도해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 (엡 2: 14-22) 만 전파자! 하셔서 밤새도록 말씀을 구원으로

가장 큰 마음으로 준비해왔다. 교회의 면담으로 ~~개인~~ 반석의 기~~초~~위에서 마음을 다시 세워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하고픈 태양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졌는지 강아일 사모님과 라사가 영성적으로 수련을 맺음을 전했다. 그래서 더불어 조금더 용감하고 표명한 생활을 유지하든 마르틴들과 농악마포에서 전해준 마음의 아픔과 과거로 사별을 만든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게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③ 우리팀이 감사하게도 제자훈련 1기를 마쳤던 사람 4명, 받은 중인 사람 3명으로 구성되어 훈련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갈등과 분쟁 없이 행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역했음에 대해 감사했다. ④ 회계담당 김태형 형제님이 권찬재가 약 2달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고 못갈 위기가운데서 수고가 끝까지 불참하셨고 때문에 우리팀이 예수님을 알지가지 않고 조금씩 환경을 세분화하여 걸음에 맞춰 프로그램을 잘마쳤다. 그리고 ~~행복정영미~~^{김태형} 모교때부터 양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등이 아픈 상황이 있었고 나는 목감기가 사역을위한 상황이고 가병도 태어났고, ⑤ 새기확신이자대림의 힘든 서정에도 불구하고 비록 ~~한번~~^{바람 불거나} 조처들이었던 날씨 가운데도 걱정치않고 강아일사모님과 이종영형제님의 헌신으로 모두 하나가 되기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만 더욱 감사드립니다.

단기선교 소감문

에바다부 1팀(러시아 하바롭스크, 10월 2-9일, 팀장: 전종욱)

강가일

먼저 러시아 농민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개월 동안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출발했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에 부푼 출발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농민학교 탐방으로 사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 2곳(농민학교, 구화학교)을 방문했는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구성된 태권도를 보여주고 풍선으로 여러 가지 만들기하며 복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1:1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준비된 영혼을 만났습니다. 작년 단기 선교 때 공원에서 만났던 빅토리아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날 다시 만난 것 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와 친구들을 선교팀 숙소 초대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글 없는 책과 복음팔찌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브니엘농민교회 초청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른 일정으로 초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농민학교에서 만난 막심이라는 학생이 복음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막심은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 선교팀이 준비한 초청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선교팀원들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브니엘농민교회에는 농민들을 돌볼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전도하고 교회로 불러 온 영혼을 남겨두고 와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선교팀원들은 막심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주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선교 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느꼈는데, 이번 선교에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주신 분들의 힘을 느꼈습니다. 늘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주신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